故 김명곤 음악 인생 재조명 작품성 인정

JTV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수상… JTV 창사 이래 첫 수상 쾌거

JTV 라디오 다큐멘터리 '슈퍼노바 김명곤 : 사운드 혁명 4부작'이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제5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라디오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북 대중문화의 저력을 알렸다.

이번 수상은 JTV 창사 이래 첫 한국방송대상 수상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방송대상에서 작품상을 거머쥔 〈슈퍼노바 김명곤〉은 지난 2024년 12월 1일 방영된 작품으로, 전북 출신의 전설적인 음악인 故 김명곤(1952~2001)의 삶과 음악적 업적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 연출은 송의성 PD가, 극본은 김세미 작가가 맡았다.

故 김명곤은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끈 거장으로, '가요톱10' 1위 곡을 다수 배출하며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다. 작곡, 편곡, 연주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생전 1,300여 곡을 남겼으며, 이는 오늘날 K-Pop의 실질적인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문세의 '옛사랑'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등 수많은 명곡들이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프로그램은 김명곤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당대 스타들의 생생한 증언과 인간적인 면모까지 담아내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송의성 PD는 "수년간 김명곤 선생의 음악과 삶을 취재해 왔다"며, 이번 수상에 이어 올가을 추모행사를 이어가고, 전주 김명곤 거리 조성 및 기념관 설립 등 K-Pop 관련 전북 대중문화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슈퍼노바 김명곤 : 사운드 혁명 4부작〉은 이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외에도 2025년 4월 9일 '한국PD대상 라디오 음악부문 작품상', '이달의 PD상 라디오 음악부문(289회)', 2025년 1월 '전북PD협회 올해의 라디오 프로그램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4년 '방송문화진흥회 제작지원 사업 선정'과 2025년 '김명곤 사운드페스타' 사업 선정' 등 제작 단계부터 높은 기대를 모아왔다.

한편, 1973년 제정된 한국방송대상은 올해로 52회를 맞았으며, S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대상을, 박보검, 이준혁, 제이홉 등이 개인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만호 기자

무주산골영화관 '작은영화관 기획전' 열린다

8~12일 독립예술영화 · 애니메이션 등 10편 영화 2차례씩 20회 무료 상영

무주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무주산골영화관과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공동 주관해 10편의 영화를 2차례씩 20회 상영한다.

무주산골영화관은 〈겨울왕국의 무민〉과 〈물꽃의 전설〉, 〈죽여주는 여자〉 등 작품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시간을 달리는 소녀〉, 〈슈퍼 키드 헤일리〉, 〈늑대아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또한 〈심야식당 2〉 등 3편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 해설을 추가한 무장벽 영화로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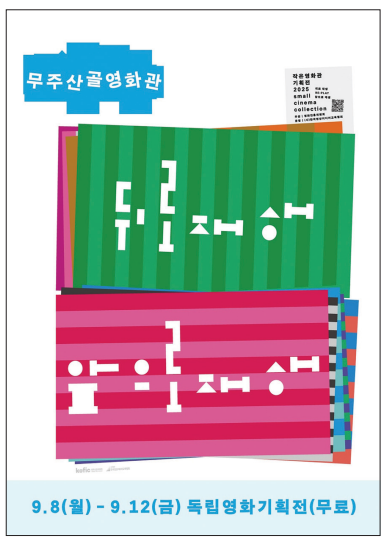
무주군 내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체험형 프로그램은 영화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정희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문화정책팀장은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독립·고전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 무료로 상영이 되는 만큼 부담 없이 즐겨 보시라"고 전했다.

무주산골영화관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의 모든 상영작은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상영 일정과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무주산골영화관 공식 누리집(https://muju.moonhwai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주산골영화관은 정기 독립예술영화 상영 프로그램인 '무주 시네마 클럽'과 무주양수발전소 지역 상생 지원 프로그램인 '무주 시네마 데이'(천원 관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양질의 문화향유 여건을 적극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관 작은영화관 기획전 독립영화기획전 포스터

전주문화재단, 하반기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 소속 전주한벽문화관이 오는 10일부터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이하 수수콘)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수콘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한벽공연장에서 클래식, 연희극, 국악, 퓨전국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연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상반기에는 5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6개 단체가 참여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수수콘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끽하고, 동시에 지역 공연예술계에도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벽문화관운영팀(063-280-7046, 7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깡패와 굿패

1부 '깡패와 장구' (19)

꽹매기(꽹과리)가 없어졌다!

- 오상근 -

잡색들도 서로를 쫓아가거나 다시 뒤로 돌아 뛰듯이 걸어가면서 손을 좌우로 앞뒤로 휘저으며 춤을 췄다.

동식의 시선은 상쇠를 맡고 있다는 이명주에게로 갔다.

다른 치배들과 잡색들에 비해 작아보였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법. 그녀의 꽹과리 치는 소리와 몸동작은 그녀가 왜 이 굿판의 상쇠인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힘이 넘쳤으며 모두를 아우르는 장악력이 있었다.

이명주만을 쫓던 시선은 곧 다른 치배들과 잡색들에게로 옮겨갔다. 모두는 각기 자신들의 기량을 충분히 뽐내고 있었다.

잡색들은 자신만의 고유의 춤사위로 춤을 추고 있었고, 치배들은 치배들대로 자신들이 연주하는 악기를 노리개 삼아 이리저리 몸동작을 바꾸면서도 자유롭게 또는 질서 있게 연행을 이어갔는데, 형형색색의 옷들이 아롱다롱 흘어지고 모여들면서 현란함을 연출했다.

치배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대포수와 다른 잡색들이 안으로 들어가 춤을 추면서 대열은 서서히 원을 그리며 연주를 했는데, 그 안으로 상쇠와 꽹과리 연행자들이 들어가 놀다가 각자의 악기를 바닥에 놓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춤을 추며 다른 치배들과 어울리며 원을 그렸다.

징과 장구, 북과 소고의 연주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지면서 치배들은 발짓과 손짓을 해가며 연행을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잡색들이 치배들의 원으로 들어가 서로 짓까불면서 춤을 추고 놀았다.

한참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연주하다가 상쇠와 꽹과리 연행자들이 가운데로 모여들고 각자의 꽹과리를 집어들고 연주하는데, 갑자기 상쇠 이명주가 소리친다.

"상쇠 꽹매기(꽹과리)가 없어졌다!"

모든 연행자들이 연주를 멈췄고, 공연은 연극으로 바뀌었다.

상쇠는 북과 징, 소고 연행자들을 불러 꽹과리의 향방을 물어봤고, 다들 모른다고 하자, 잡색 중 영감을 불러 꽹과리의 소재를 물어본다.

상쇠는 물러가 앉고 영감이 주인이 되어 연행을 이끌어 가는데, 영감은 노랑저고리를 입은 각시를 불러 구암산 주상봉의 박보살을 찾아오라 한다.

잠시 연주가 이어지고 조리중이 들어와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다. 조리중은 점을 친다면서 상을 가져오라 하고 각시는 북을 가져와 조리중 앞에 놓는데 조리중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칭얼댄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가나다라마사!"

점을 치던 조리중은 적군의 대장군 대포수가 꽹매기를 가져갔다는 점괘를 내놓는다.

대포수가 잡혀오고 대포수는 조리중과 다투다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린다.

대포수가 죽자 어처구니없게도 망구가 나는 못산다며 구슬피 울고 영감은 이에 화를 내고, 망구는 영감에게 대포수를 살려내달라 사정을 하지만 들어주지 않자, 망구는 상쇠에게 부탁을 하고 상쇠가 영감에게 청하자 영감은 다시 조리중을 불러 대포수를 살려내라 하는데, 조리중은 나발을 가져와 대포수의 가랑이 사이에 대고 불어대자 조금씩 하체를 들었다가 내리는 우스꽝스런 동작을 하다가 몸을 일으켜 살아나고, 영감은 상쇠에게 신명나게 굿이나 쳐보자 청하자, 상쇠는 치배들에게 신나게 놀아보자고 요청하고 치배들은 다시 연행을 이어간 뒤 굿은 마무리되었다.

타악기 위주의 연주는 단순했으며 원시적이었는데 단순한 만큼 울림이 무거웠고 깊었다.

동식은 저 시끌벅적할 것 같은 타악기의 연주들이 몹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장구를 쳐본 경험이 있는 지라 굿 리듬의 장단을 어느 정도는 체득하고 있어 저도 모르게 고갯짓을 하고 손뼉을 쳐가며 흥에 빠져 있었다.

생긴 건 영락없는 건달이었지만 공연장에 앉아 관굿을 보는 동안은 그저 우리네 음악과 공연에 빠져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필부에 지나지 않았다.